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매주 설교 '한 주간의 말씀' 카드를 사용합니다.
- 오늘 주일예배는 각 학교 졸업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졸업생 명단 >
유치학교 : 공루아 권하민
초등학교 : 이홍인 엄유민 옥수민 진나우 황우연
고등학교 : 정예찬 한승현 구민성 석지원 신수정 윤혜교 임서정
대학교 : 안지운 서진솔 조윤희
대학원 : 해은
- 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함께 기도할 일들
하경임집사 시술(18일, 목) 김영상집사 수술(19일, 금)
조한결청년 제대(4일, 목) 최태현청년 입대(23일, 화)
오영옥권사 이사(21일, 일) 한누리 출산예정(3월 22일)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8 호

2021년 2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지난 17일은 재의 수요일로 사순절의 시작일입니다. 사순절(四旬節)은 네 개의 4 열흘旬으로 40일을 가리킵니다. 부활주일 전 40일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재의 수요일에는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내용을 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선언은 인간의 유한함과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잊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떤 생명도 태어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재의 수요일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재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잿더미 속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창조물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는 심정으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맞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리어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육신이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

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일생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에 인기는 곧 권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이들을 셀러브리티, 혹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며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탄이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서 이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 뜻은 과정이 없이 결과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을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만을 한 번에 이루게 해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많이 빠지는 유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경쟁적인 세상에 내몰리다보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다 건너뛰고, 쉽게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만 바라는 것은 매우 비참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을 나는 잘 치르고 있는지 스스로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신앙의 성숙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今日は 졸업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한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졸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길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7장

제목 : 너희는 왜 그리스도를 죽이려느냐?

인도 : 정재훈 전도사

기도 : 이윤희 권사

찬송 : 90 263 295 301 542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9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10-24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5-39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40-53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2. 내용의 의미(Why)

1)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면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2) 예수님은 친히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3)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로 증거하셨다.

3. 의미의 적용(How)

1)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자.

2)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3)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당신을 따라

내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또한 사순절은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려는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 성공, 사람들의 존경, 쾌락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귀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 음성에 더 예민하게 하소서.

사순절이 제게 매우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는 늘 저항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하소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맞볼 수 있게 하소서.

헨리 나우엔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전도사
설교자 : 권재만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히브리서 12 : 1-2	인도자
* 예배의 찬송	31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시 편 51 : 17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88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대표기도)		서병욱집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마가복음 10 : 45	설교자
성가대 찬양	87	사랑방
설교	“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52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55(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진정행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저희에게 기쁜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공동기도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놀라운 경험들과 새로운 출발.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에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저 종교의 중심지로 향해 모든 부조리들을 물리치고 새나라, 새 땅, 새로운 통치를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 멋진 자리 하나씩 얻어 즐거움을 누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장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열정적으로 따르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곧당하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전혀 다른것에만 관심을 둥니다. 그래서 세배대의 아들들의 요구에 대답하시며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공간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전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곳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듣고 보았으며 살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다. 마가복음을 통해 섬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남을 높이고 섬기면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사셨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으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였던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진정행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설 연휴를 보내고 꾸러기학교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경험 덕분에 이번 주 만남은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무젓가락으로 놀기, 젓가락과 지점토를 사용해 만들기, 풍선과 모루로 거미 만들기, 절연테이프와 홀라후프를 이용해 거미집 만들기, 뱅글뱅글 뱀 만들어 놀기를 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조물조물 야무진 솜씨로 탄생한 작품이 카톡방에 공유되면 감탄의 댓글이 달리고 웃음꽃도 피어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노엘이의 생일잔치와 박현주 선생님, 정낙귀 선생님 그리고 서연이, 또 졸업을 하는 다람쥐반 세 친구들과의 송별 인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도 반가움과 기쁨,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환한 미소, 글썽이는 눈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에서 가졌습니다. 처음 보는 반가운 얼굴, 다시 만나 반가운 얼굴들이 만났습니다. 2021년 꾸러기 식구들의 새로운 출발을 모두가 응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길었던 겨울방학도 어느새 끝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오랜 휴식을 마치고 2월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월학기라 해도 따로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학기말발표회와 졸업식 준비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준비를 하다보니 다섯 명이 넘는 학년들은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20년도 학년의 마지막 추억을 잘 쌓길 기도합니다.

교사들은 20일에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학기말 발표회, 다가오는 졸업식과 새학기 준비로 분주한 2021년 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방역

을 위해 힘썼던 지난 해를 보내고 나니 선생님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되는 올해입니다. 2021년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이전과 비교하면 아쉽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학교의 2월 학기였습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잘 준비하도록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조 익 >

멋쟁이학교

이번 주간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곤 하나, 계속해서 드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불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멋쟁이들은 성서일기 쓰기와 나누기, 그리고 각종 학과 수업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울였던 귀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국에 발맞추는 방식의 온라인 연합졸업식이 이번 주일에 열립니다. 몇 년간 애쓰며 학교생활을 이어간 모든 졸업생들을 상찬해주세요. 그리고 앞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멋쟁이학교 졸업생은 성승주, 한승현, 최민, 정예찬, 김윤성, 신수정, 우림, 윤혜교, 석지원 9명 입니다.

또한 이번에 해은 선생님께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여러모로 학교생활과 연구를 병행해오신 본인과, 함께 지탱해온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기대 반 걱정 반

길고 길었던 2020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학교의 2020년은 오늘 끝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의 걱정 속에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뵙는 분들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말을 하시며 청년 교사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방으로 삶의 자리를 옮겼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아동 교육을 경험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만 32세의 시간을 앞두고 다시 어린이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면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그만큼 불안한 마음도 더 커졌던 1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삶은 불안 속에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에 힘썼고 이른 아침표를 생각하고 실행했었습니다. 그러다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교육의 얼굴을 찾자 이공계열에서 기독교교육으로 교차 지원을 했습니다. 공자, 맹자, 루소, 흄스라는 이름도 생소했던 1학년은 어느새 청소년부에서 교역자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졸업이 다가왔고 또 다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학대학원 진학과 다른 삶 사이에서 직업상담사라는 생소한 삶을 선택해 살았고 계속된 선택의 순간에서 사랑방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100% 만족하는, 이득으로만 이뤄진 선택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하고 선택했던 과거의 나를 향해 분노한 적도 많았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하고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랑방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많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 국가에서 공인한 장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는 장손의 책임감과 아들의 책임감이 엄매입니다. 주변에서의 연애와 결혼, 돈 등 많은 걱정거리를 또 던져줍니다.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 앞에서 실망도 할 것이고 계획, 생각과는 다른 현실에 주저앉기도 할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많은 걱정만큼이나 많은 기대가 됩니다. 2020년의 혼란 속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과 그 뒤의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2021년도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조익 청년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잠언 10장

인 도 : 정재훈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미얀마를 위한 기도>

미얀마에서 17일 쿠데타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의 불꽃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날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수만 명씩 운집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에도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일본비전공동체>

- (1) 종로 5가의 일본비전교회의 지교회로 개척되는 오사카 비전 토브교회를 위하여
- (2) 제이바 하우스가 일본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로 잘 활용되도록
- (3) 비즈니스 선교사 훈련원이 일본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연합 졸업식을 위해>

이번에 졸업하는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에 있을 제15회 사랑방공동체 학교 연합 졸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이제는 봄이 오나 봄입니다. 지난 주 그렇게 추운 한파가 지나가고, 어느새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이제 곧 생명이 곳곳에서 움터서, 겨우내 움츠렸던 모습에서 깨어나 새로운 모습들을 비춰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졸업하는 시기라서 곳곳에서 바쁜 소식이 들립니다. 공동체 학교에서도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합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잘 자라난 아이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